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원규



심진강변은 지금 말 그대로 만화방창이다. 꽃샘 추위 속에 매화며 산수유 꽃이 피어나더니 순식간에 개나리·물앵두·진달래와 더불어 길가의 벚꽃들이 팝콘 터지듯 환하게 피어나고 있다. 심진강 양안을 따라 하동에서 구례까지 19번 국도가 그러하고, 망덕포구에서 사성암 아래 동해마을까지 861번 지방도가 그러하다. 꽃과 사람과 차량이 서로 어울려 한바탕 봄날의 활기를 찾고 있다.

민은 하루하루 생존 위기의 벼랑길을 지나고 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귀가 없고,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원의 눈이 없고, 공무원들에게는 따스한 손길이 없다. 촌래 불사춘이라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것이다.

만화방창에 토종벌들 어디 갔나

그런데 이번 봄에는 유난히 무성고도 불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때가 왔다고 온갖 꽃들이 피는데 꿀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처음 매화가 필 무렵에는 그래도 꽃샘 추위 때문이거니웠다. 그런데 매실꽃밭에서 만난 어느 할아버지가 “이상하, 벌 한 마리 안 보여. 작년엔 병해 때문에 허탕이었는데 올해는 벌마저 안 오니 참말로 불안하. 난생 처음이여”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니 사진기를 들이대고 아무리 해매어도 매화꽃에 날아드는 벌 한 마리 찍을 수 없었다. 이따금 꿀벌인가 싶

어 가까이 줌으로 찍어보면 벌 비슷한 것들이었다.

조금 날씨가 풀리고 벚꽃이 피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집 물앵두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벌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열 마리 정도의 꿀벌들이 날아와 꽃무리 속을 날아다녔다. 지난해에는 꽃송이만 큼이나 많은 벌들이 날아다니던 것을 생각하면 수백 분의 일도 안 되는 마릿수였지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난해 ‘벌의 에이즈’ 혹은 ‘토종벌 괴질’로 불리는 남충봉아부패병이 크게 확산되면서 토종벌의 90% 이상이 폐사했기 때문이다.

“만약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할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경고가 섬뜩하게 다가온다. 지구 전체 식물의 3분의 1이 벌의 도움으로 수분하기 때문에 인류는 식량 고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종벌 농가들은 “토종벌 1통 가격이 기존의 5배인 50만 원으로 올랐다. 종벌 구입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아우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토종벌 농가들뿐만 아니라 개화시기의 과수농가에까지 비상이 걸린 것이다. 나주의 한 농민은 “인공

수분에 1000만 원 안팎의 ‘뽕돈’이 들어간다.

며칠 전 중국산 꽃가루 1kg당 200만 원 넘게 주고 사았는데 불량일 수도 있어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자연의 일, 꿀벌의 노동력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남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원인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뚜렷한 대책이나 보상 등 문제해결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문제는 토종벌·과수농가의 피해를 넘어서는 지구적 생존의 문제다. 그토록 안전하며 경제적이었던 핵에너지 산업의 폐해가 지구 전체에 공포를 불러온 인재인데, 꿀벌의 멸종위기 또한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화 이후 난개발 등 반자연적인 삶의 방식이 불러온 인재가 아닐 수 없다. ‘대강 사업’ 등 그 대표적 예다.

문득 궁금곶졌다. 벌 한 마리가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수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꿀을 훔쳐 먹는 탐욕의 일’이 아니라 ‘꽃가루를 수정시키는 생명의 일’을 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모두 죽어가고 모두가 아픈데 실은 아무도 아프지 않은, 통증마저 못 느끼는 ‘무통(無痛)의 시대’가 너무나 슬프다.

(시인·지리산학교 교사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략적 과학벨트 선정, 지역 갈등만 키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 등 여권에서는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 분산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문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은 최근 “과학비즈니스 도시가 아니고 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강조, 과학벨트 분산 배치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 4일 김법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과학벨트의 영남권 분산 배치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 배치론이 힘을 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본원을 충청권에, 본원을 영남, 호남 등에 배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 안은 지난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바 있어 현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충청권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영남권에 중이온 가속기 등 핵심시설을 배치하고 광주시 등 호남권은 분산 배치라는 명

분에 맞게 끼워넣기 식으로 일부 분원(사이트 랩)만 보내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특히, 일각에선 정치적 계산 등을 감안하면 첨단연구복합단지 사례에서와 같이 호남권에 과학벨트 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우려가 크다.

하지만 과학벨트 문제는 공과 과학으로 들끓고 있는 충청권 민심과 동남권 신흥 권력 배지화로 이동되고 있는 영남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낙후지역 우선 순위가 앞장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만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다면 이 정권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광주·전남 교육청 비리 척결 의지 지속돼야

광주·전남교육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살을 기도한 데 이어 전직 교육장과 교장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지역교단이 크게 슬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다량 시·도 교육청이 비리 연루 인사를 사법당국에 잇달아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교육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최근 양 교육청의 비리에 대한 강경 대처를 바람직한 변화로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의 부패와 비리는 고질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청 비리는 인사에서 각종 학교 공사와 기자재 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왔다.

과거 시·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부비리가 터질 때마다 ‘쉬쉬’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교육비리를 고질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비리 척결을 제 1 공약으로 내

세운 시·도 교육청이 당선된 것은 지역 교육청 비리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 비리에 대한 지역민의 여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이 비위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내부비리에 과감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자칫 교육청 전체를 비리 집단의 비치게 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도 이는 감수해야 한다. 부정과 비리를 그대로 두고선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도 교육청의 비리 척결은 지속적 이뤄져야 한다. 1회성으로 그치거나 교육청 취임 초 ‘군기 잡기’로 왜곡돼선 결코 안 된다. 끊임수수 등 관행처럼 굳어진 뿌리깊은 비리를 이번에도 완전히 도려내지 못한다면 지역교육의 미래는 없다.

정회국·장만재 양 시·도 교육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을 선택한 ‘사·도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정희도



“때로는 살인범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훌륭한 검사가 되길 바란다.”

제가 법대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집안 어른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초인검사 시절,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를 살해한 어린 학생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던 그 학생을 보는 순간, 저는 극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긴 하지만,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를 살해한 그 학생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말 못할 고통을 겪었는지,

계, 존경하는 선배가 수사기록을 찬찬히 살피고는 이곳저곳 명이 들어 누워 있던 그 학생의 아버지 사진을 펼쳐서 던져준 이야기입니다.

법민 속에 며칠을 보내고 저는 그 학생을 처벌해달라며 법정에 세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는,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달하겠다고 유부녀를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내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한 전과 7범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고 풀어주는 바람에 그 피의자가 자취를 감추고 도주하여 한 달 후에서

기고

김용하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 사이 청명

이 되고, 곡우가 다가오고 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절기이다. 그러나 요즘은 밖에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 놓고 심호흡하거나, 곡우 봄비라도 촉촉이 맞아보는 서정을 맞보기도 어렵게 되었다. 촌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분시 촌래불사춘이란 말은 왕소군의 고사에서 유래되어 훗날 당나라 시인 동방삭이 모래로 뒤덮인 오랑캐 땅에서 삼막한 삶을 살았을 그를 안타까워 해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 촌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노래했다. 거친 모

북한이 철저한 안전장치도 없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을 고려 할 때 방사능의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대비, 행동수칙의 제정 등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문제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운명과 선린우호의 정신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위기에 대처 방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자연의 재해와 원자로

봄날 서정 맞아간 방사능 공포

래평에 화초와 풀이 없을 테니,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요사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공포 속에 얼어붙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때문이다. 방사선과 방사능 물질에 접촉이 되면 그 양에 따라서 수개월 이내에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으면서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등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느 한때 어느 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고 수십 년 혹은 대를 이어서 유전자변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니 그 공포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히 천형이라 할 것이다.

직접 피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수를 통해서 식수원과 지상의 모든 생물과 식품재료, 바다의 생물이 오염된다 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건강과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누출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높은 수준의 시민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이다. 곧 바다야 날지도 모르는 음료를 사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자동차행렬, 지나친 사재기나 절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소 일본가정과 교육의 방향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배려의 교육의 소산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은 것은 절실한 시대적 요구로 되고 있다. 우선 시민 각자가 자존의식을 갖되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식을 길러가야 한다.

(광주교 교장·광주시국공립중등교장협의회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정의로운 형사법 제도

그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회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학생을 용서해 주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그 학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 학생을 처벌해달라며 법정에 세우게 한 것일까요?

‘아들에게 맞아 죽어간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아버지가 겪은 아픔이나 말 못할 고통은 없었을까?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 아들을 용서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검사의 권한인 기소유예를 행사하여 그 학생을 용서해야 할 것 같다는 저에

야 간신히 붙잡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며, 저는 그 피해자가 협박을 당해 2억여 원을 뜯기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절망감이 어땠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도주하여 잡히지 않고 있던 그 한 달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는 또 어땠을지 헤아려봤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말 못할 아픔까지도 헤아리고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정의로운 형사법제도를 희망해봅니다. (광주시법검찰청 검사)

급증하는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급

최근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 노인의 자살 인구가 급증하고, 그 수치는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노인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삶을 등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노인들에게 죽음은 삶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자 정부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책을 내놓는 사이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노인자살은 급증한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당장 동네병원에서 간단한 심리 검사와 상담만으로도 자살을 크

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일 급한 것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살 시도 직전에 이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프로그램이나, 자살 충동을 느낀 직후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 가운데 60%가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가족을 가축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자를 마련하는 등 사회가 나서 책임질 부분은 서둘러 나눠 가져야 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백은희·광주시 북구 각화동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金鐘宅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논설주간 申港樂 | 편집국장 曹庚完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이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